



UK Club risk project

회원들의 클레임 절감과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도와 드립니다



새로운 접근(A new approach)

상호보험은 실비 개념으로 운영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들이 소유하는 비영리 조직이며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상호보험비용은 회원들의 클레임과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감소시키는 것은
곧 바로 회원들의 분담금(보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87년 이후 클럽은 해운관련 배상책임 클레임을
취급해온 경험들을 토대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러한 경각심을
선주들에게 전달하는데 이용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클레임 추이에 관한 조언, 포스터, 비데오, 화물선적
지침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물론 계속될 것이지만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 환경 하에서 선주들의 보험료와 원가들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선주들로 하여금
자체선단 내에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질 알려진 것처럼

리스크 = 빙도 x 결과(손해)

라는 정의를 따라 클럽에서는 고위험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클레임들을 야기하는
위협(threat)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클럽의
클레임들에 대한 값(value)과 수(건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럽의 해외
연락사무소(correspondents), 써베이어 들, 클레임
담당자들, 언더라이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선원들 등 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절차적인 것인 듯, 관리상의 문제이든, 설계상의
것인 듯 무엇이든 간에 어떤 통제가 그려한 클레임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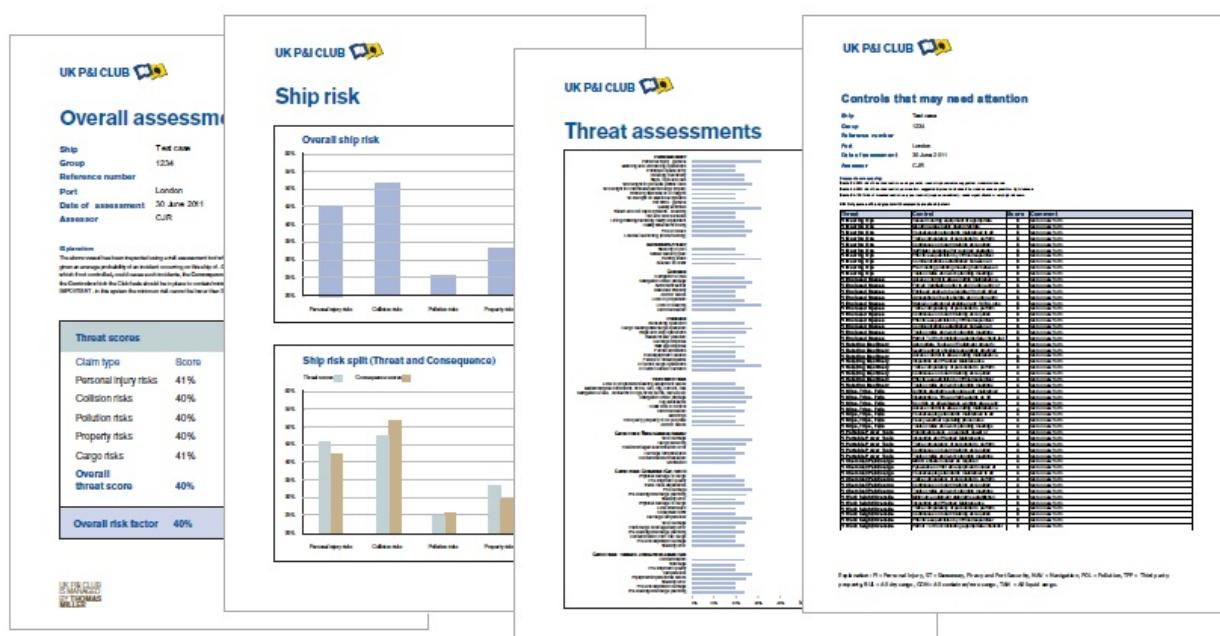
경감시켰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경감되었을
것인가를 알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협들과
통제들은 그 다음 클럽 자체의 리스크 평가원들이나
선원과 함께 선주들의 도움을 받아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클럽이 몇몇 회원들과 함께 각 회원 선단에
관한 상세한 리스크 프로파일링(검사항목)을 제공한 후
육상사무실 및 해상요원, 클럽 자체의 평가원들,
클레임담당자들 과 언더라이터들이 함께 작업하여
관련된 위협과 통제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P&I 클레임을 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
위험군의 위협들과 그러한 결과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던 통제(수단)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앞으로
육상이나 해상에서의 조그마한 인적실수가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무너트리는 임계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클럽의 클레임 담당자들의 경험과 클레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클럽에서는 배상책임클레임을 야기한
주요 위협영역들 76 가지와 그러한 위협들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450 가지의
통제수단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리스크들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을 하기 위해
회원각자와 긴밀하게 작업하며 클레임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각자의
안전시스템의 범위안에서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과 흐름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도 할 수 없다'라는 옛말이
지금처럼 타당 한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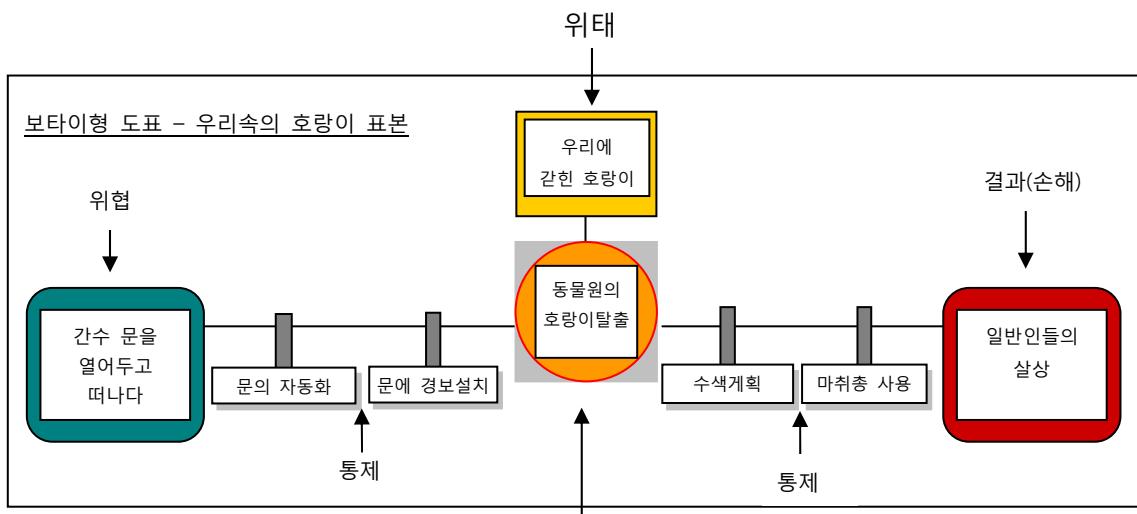


방법론(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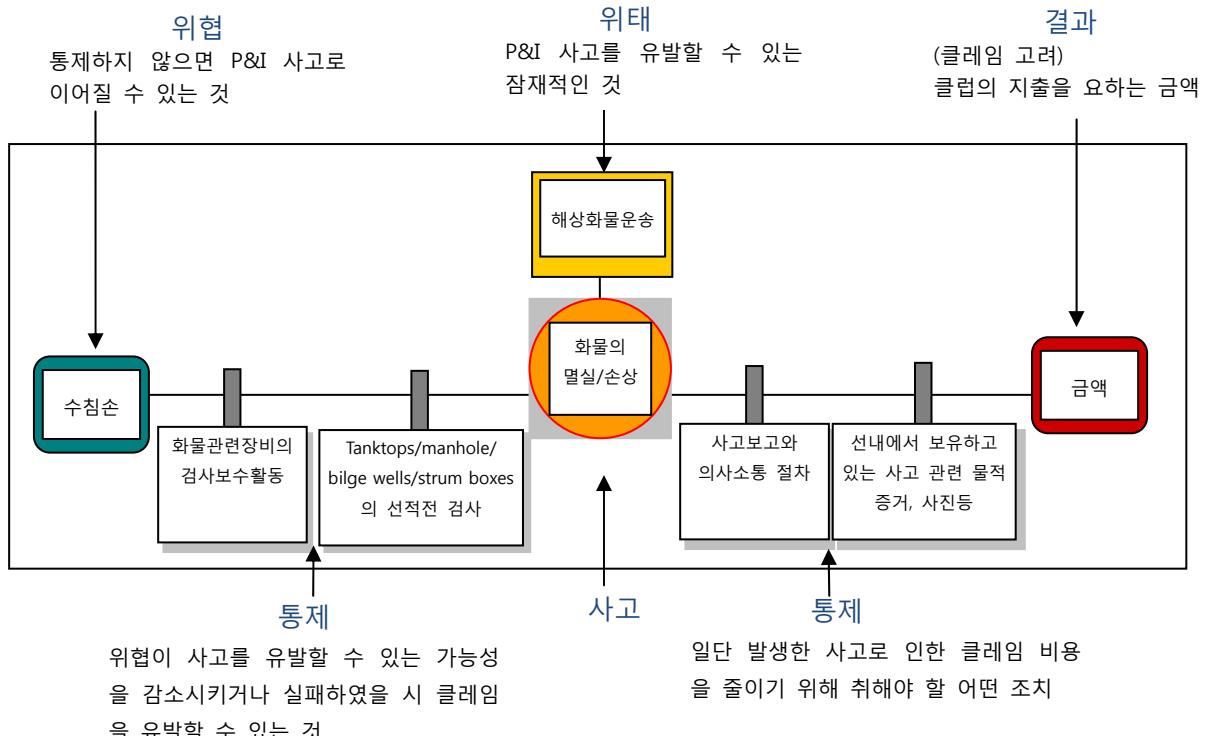
'우리안의 호랑이'(The tiger in the cage example)

UK 클럽 클레임의 60%가 인적파실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인적파실은 종종 인과관계의 체인에서 맨 마지막의 상황을 의미하는, 불행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최후의 행동일 뿐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통상적으로 선박운항에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빚어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두고 '언젠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사고들의 발생 빈도를 줄일수 있을까. 그 위협을 가두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통제란 무엇인가 ?



선상의 방법



장점(Benefits)

- 고액 클레임의 근본원인 처리에 관한 선주와 오퍼레이터에 대한 전략적 지침
- 실제 사건표본들의 계량화를 통해 선주와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와 손해 방지 활동에 대한 투자의 안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 세부 보고서를 통해 선단 운항부서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상호 공조와 효율을 고양 한다
-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신중한 손해 방지 활동을 촉진 한다.
- PSC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여 그 절차를 촉진하며 기항지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업무량을 가볍게 하고 선박의 자체를 줄인다
- 투명한 접근방식을 통해 선주와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고객, 협력업체, 대리점과 기타 제 3자들에게 모범사례의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특징(Features)

- P&I 분야에서 해상손해의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독특한 접근방식
- 알려진 리스크 위협들에 바탕을 둔 실행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
- 손해방지와 클레임 취급의 두 가지 경험의 통합
- 20년 이상에 걸친 기간의 대형 클레임의 분석자료들을 클레임의 위협요소들을 계량화하고 확인하는데 사용
- 클레임 담당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핵심 위협요소들의 주변 환경을 악화 또는 기여하는 것들에 관한 자세한 고찰
- 20년에 걸친 선박검사와 손해방지 활동을 거쳐 축적된 지식 펀드를 통해 리스크를 확인하거나 위협의 진행방향을 알린다
- 리스크 프로파일링과 벤치마킹을 통해 선주에게 자신의 실적(평가)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
- 짜임새 있고, 반복사용이 가능하며, 투명하고 쉽게 최신화 가능

UK P&I CLUB
IS MANAGED
BY THOMAS
MILLER